

<2013년 11월23일 토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예수님 사진. 하이얀 국화꽃과 보랏빛 들꽃이 왼쪽에 현화되어있고 뒤에는 바위섬과 바다가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하얀색 양복에 하얀색 넥타이를 하셨습니다.)

제목: 소원성취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50절

여러분들 시대를 만났어. 전도할 자를 만났으면 시간투자 정성투자 요즘은 나와 같이 하라 내가 관리해주마.

내가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죠. 관리 투자 시원찮게 하다가 못 남죠. 사람들은 처음에 미친척 좋아하다가 가치성 상실하다가 혈값이 팔아요. 모든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주를 찾았으면 더 빛나게 만들어라 더 운이 나게 비단옷에 문질러라 이와같이 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도 찾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어. 그렇게 찾다 돌아다녔으니 좋지.

너무 세계적인 역사하다보니까 급기야 편지를 써서 27장 써서 보냈어요. 힘차게 하라 만날 날이 있으니까. 뛰고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부지런히 찾고 다니면 만날 수 있어.

나 만나는 것이 소원이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를 항상 잘 해나가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꺼여. 사람의 심리가 그래. 콧감이 있어도 자기가 먹어봤으면 더 취하지 않은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길줄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것만 귀하게 여기고 자기것만 최고라고 하죠. 새역사 만난 사람은 처음엔 좋아하고 버리고 나면 끝난거여. 좋은 집을 찾으려 좋은 땅 좋은 사람을 찾으려 다닙니까 좋은 사람을 전도하러 다닙니까.

찾아야있는거여. 선생님 우리 교회에 참 기준자 없는데 어쩔꺼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찾으라. 그냥은 없어. 일주일 열흘 기도하고 찾는거여.

그냥 얻으면 안돼. 값진 진주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만나야 투자하지.

반드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한 말씀 이 시대에 똑같아요. 값진 진주를 찾으려 다니라. 구원자를 찾으려 다녀야 만나는거여. 구세주를 찾으려 다녀야 만나는거여. 지금은 예수님이 만날만한 때다 은혜받을때다. 자신이 구원주이면서 앞으로 구세주가 온다. 간접적인 말씀을 해줬어. 본인인데 눈을 뜨라고. 소원을 성취해. 오늘 말씀을 듣고 소원성취하려면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얻어.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해. 이세상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 기도를 먼저 해. 나부터도 진리를 찾을때 그렇게 기도하고 귀한 사람을 만날 때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보라. 예수님을. 귀한 것을 모르고 보낸 사람은 귀한 것의 지식이 없는거여. 번쩍 번쩍한 진주는 가짜라고 하더라구. 자연진주는 안 그런대.

그런 장식이 난 없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소원을 성취해야겠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나도 같이 도우마 귀한 것을 얻게 되면 끝까지 갖고 있으면 엄청난 값이 될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 혹은 귀한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여기 운동장을 써도 다 차고 어딜 가도 넘치고 내줘야하고.

이럴때마다 하나님 우리만 쓸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 방방곡곡 돌아다녔어. 제자들도 보내보고.

그런데 여러군데에서 괜찮다고 와보라고 해서 가려고 했어. 우리 마을은 물도 없지 우리 마을은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한거여.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씀을 받은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거든. 예수님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되듯이.

그게 법칙이여. 그것을 못 깨닫고 대한민국 각지로 돌아다녔어.

혹시 좋은 땅 헐하게 살수 있나. 다 비싸지오. 땅값이 솟았는데. 결국 기도하다가 월명동 숲속을 발견했어. 그 숲속을 개발해서 보잘것 없는 여기를 개발했어. 어떻게 개발해서 불도 차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배도 띄우고 이상세계를 만들까 하나님이 하라는거여. 여기서 한다고.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여기서 말씀 받았고 천년사 말씀 주었으니 여기서 해야된다고. 내가 너무 꿈을 크게 가졌나 웅달샘서 물이나 실컷 먹고 하지. 나는 돌도 쌓고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쌓으래. 그래서 아멘하고 결국 만든거여.

돌을 갖다가 쌓고 계속 이곳이 내가 했던 값진 진주와 같은 곳이야.

결국 누가 봐도 이렇게 푸른 물을 만들고 결국 배를 태워 적어도 4-5만이 앉을 장소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해.

불가능한 장소이지만. 여러분도 불가능한 장소를 만들어서 결국 청중들이 여기 앉게 만들었어. 여기가 좁으면 국가땅 또 쓰면 되지 않겠냐.

많을 때는 여기 모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도 불가능한 것을 밀어붙이면 여기서 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연못 등산할 곳이 있는곳 다 산책할곳 다 있잖아.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해야 밭에 감추인 보화 긍정적으로 봐야 진주를 발견하고 귀하게 깨달아야해. 열심히 땀 흘리고 제자들과 같이 계속 하잖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성지땅이 되고 말았어요.

진주를 만나매 진주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 헐하게 사고. 헐한 것을 찾았으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안 주고 사게 했으니 더 좋잖아.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영광돌리며 가야겠어. 오늘 처음 온 여러분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히 끝까지 해야해. 가다가 말지말고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나를 만났을때도 값없는 사람인지 알고 다 갔어.

다른 지도자를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 보낸 자 아니라고 하고.

가는데 세계로 나가니까 핍박하고 방송나게 하고 못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와요. 금년도 환란이 많이 일어나고 방송이 많이 났는데 제일 많이 전도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거여.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모두 기도하고 그렇게 뛰고 달리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원을 성취하는 이들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너희도 그리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 뜨겁게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게 축복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으니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